

## 【 2018 공인노무사 합격 강태영 】

1 차 시험 점수	노동법	사회보험법	민법	선택과목(경영학개론)
2 차 시험 점수	노동법	인사노무관리론	행정쟁송법	선택과목(노동경제학)
	263.76	165.34	183.99	190.16
	총점	803.25	평균	59.5

### 주제1. 수험 시작 동기와 수험 기간

- 전문성에 대한 갈망으로 15개월 간의 짧지 않은 수험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기계공학을 전공했고 다행히 졸업 전에 취업이 되었던 운이 좋은 케이스였습니다. 이후 직장생활을 약 2년간 했지만 사내 생산관리 직무에 있어서 전문가로의 지위를 갖기 어려웠고(대체가 쉬운 인력이므로)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우연히 공인노무사 전문자격을 알게 되었습니다.

퇴근 이후의 시간을 이용하여 수험공부를 시작하려 했지만 매일같이 반복되는 야근과 회식 등으로 인해 공부시간을 확보하기 상당히 어려웠고 마침 회사가 구조조정을 시작하면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회사를 그만두고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신림동 고시촌에서 자취를 하며 공부를 하였고, 자취에 필요한 비용, 학원비, 생활비 등을 전부 제가 모아두었던 돈으로 해결했기 때문에 수험기간을 최대한 짧게 가져가야한다는 생각을 했고 무조건 1년내에 끝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운이 좋게도 동차로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고, 지금은 훌가분하게 다가올 집체교육을 기다리며 쉬고있습니다.

### 주제2. 나만의 학습 방법

- *스터디는 독이 될 수 있다.*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현직에서 더욱 빛나는 노무사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 노무사단기

먼저 저는 주변에 경영학이나 법학을 전공한 친구가 없었습니다. 우연히 로스쿨에 재학중인 친구를 통해 노무사를 알게되었지만 그 친구 역시 공인노무사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시작하기 이전에 어떤 과목들이 있는지, 1차, 2차, 3차 시험은 어떻게 다른 것인지, 어떻게 공부를 해야하는지 등을 혼자서 전부 알아내야 했기 때문에 시험에 진입하고나서도 약 한 달정도는 정보수집에만 공을 들였습니다.(지금 생각해보면 꼭 필요한 일은 아니었네요)

정보수집이 마무리되고보니 이렇게 한가히 컴퓨터나 보고 있을 시간이 없고 당장 공부를 시작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1차는 민법이 버티고 있었고 2차는 모든 과목들이 상당한 난이도와 공부량을 자랑했으니까요.

그리고 정보수집을 하는 과정에서 선택과목 또한 정해야 했습니다. 서점에가서 경영조직론과 노동경제학 책을 보면서 그래도 숫자에 익숙한 저로서는 노동경제학을 선택했습니다.(친구의 만류로 민사소송법은 염두에도 두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획을 세워서 공부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저는 살면서 여태껏 계획을 세워서 공부를 해본적은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토익 인강 하루에 세개듣기 정도가 전부였으니까요. 그리고 시험보기 전까지 학습해야하는 양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기 보다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집에 늦게 들어가기를 목표로 최대한 많이 공부했습니다.

예컨대 0기와 1기에는 평일반 진도에 맞춰서 그날 배운 내용까지 누적복습을 실시하고 복습이 끝나기 전까지는 집에 가지 않고 공부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복습이 빨리 끝나는 날은 집에 좀 일찍 가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공부가 하루이틀에 끝나는게 아니라 최소 1년을 보고 가는 장기 레이스이기 때문에 체력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기 이전까지는 개인자전거를 자취방에 두고 하루에 한 시간씩 도림천을 달렸습니다.

### -서브노트

저는 서브노트를 하나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만들어볼까 생각도 했지만 서브노트를 만드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시간이 아깝기도 했고 서브노트를 제가 직접 만들기 위해서는 주제별로 또는 내용별로 중요도를 따질 줄 알아야하는데 배움이 길지도 않은 제가 어느 주제가 중요하고 어느 주제는 중요하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것은 오만한 일이라 생각해서 서브노트는 제작하지 않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서브노트를 제작해놨다고해도 주변에 들리는 말도 있고 커뮤니티도 꽤 활성화되어있는 노무사 수험계에서 서브노트에 없는 내용이 있다거나 최신판례가 추가된다면 서브노트에 또다시 손을 대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거라는 생각에 서브노트를 제작하지 않았습니다.

서브노트를 제작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겁니다. 서브노트를 만들면서 공부가 되기도 하니까요. 다만 저는 시험 직전에도 회독수를 늘림에 있어 계속해서 수험서를 봤고 그 중간에 빠지는 내용이 없게끔 꼼꼼히 봤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좀 오래걸렸고 힘도 많이 들었습니다.

### -스터디는 독이 될 수 있다.

스터디는 스터디원끼리 정보를 주고 받고, 내가 도움 받는만큼 상대방에게도 도움을 주어야하는데 저는 그럴 실력이 부족하고 시간 또한 아까웠기 때문에 스터디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시험 직전이 되니까 생각보다 공부도 잘 안되고 체력도 많이 떨어진 것 같아 혼자서는 공부 힘들었기 때문에 전과목 쓰기 스터디에 하나 참여하고 제가 노동법 쓰기 스터디를 만들었습니다.

노동법의 경우에는 제가 들었던 선생님이 소위 1타 강사님은 아니었다보니 제 실력이 상대적으로 어느정도인지를 평가하기가 어려웠던 측면이 있었고,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고자 복사집에서 문제를 사기도 하고, 스터디원이 가져온 모의고사 문제를 풀기도 하면서 다시 한번 판례를 체크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현직에서 더욱 빛나는 노무사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 노무사단기

스터디는 잘 이용하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겠지만 스터디에 갇히는 순간 자기 공부는 날아가고 스터디를 위한 공부만 되어버리므로 스터디를 하는 것은 신중히 생각하셔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 주제3. 과목별 학습 방법 및 고득점 팁

#### - 인사를 버리고 노경을 살리자

##### 1. 노동법 - 자유로운 답안구성

노동법을 비롯하여 행정쟁송법까지 법학 과목은 목차를 고민하지 않고 답안을 작성하려고 노력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전체내용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판례암기는 암기대로하고 특정 챕터만 깊게 파기보다 전체적인 구조를 먼저 잡고, 각 논점 간 연결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게 완료되면 노동법 책 처음에 나와있는 대목차만 보고도 처음부터 끝까지 마인드맵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물론 판례 또한 최신판례를 포함하여 빠짐없이 외웠습니다. 저는 적어도 시험보러 들어갈 당시에는 판례암기에 있어서 누구보다 뒤쳐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2. 행정쟁송법 - 판례에 따른 결론만 깔끔하게

행정법은 신림동의 많은 강사님들의 모범답안을 보면 구성이 복잡한 답안지가 많습니다. 제가 비록 답안을 채점하는 교수님도 아니고 학원에서 행정법을 가르치는 강사도 아니지만 공인노무사 시험은 실무가를 뽑는 시험이기 때문에 학설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학문을 함에 있어서는 학설이 매우 중요하겠지만 실무를 다루는데 있어서는 학설보다는 판례에 따른 결론을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실체법인 노동법과는 달리 절차법인 행정쟁송법에서는 판례에 따른 결론을 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에따라 노동법과 비슷하게 답안을 작성했고, 18페이지중 12페이지만 작성하고도 60점을 넘길 수 있었습니다.

### 3. 인사노무관리론 – 개별기능 간 유기적 연결

공학을 전공했던 저로서는 인사노무관리가 너무나 어려운 과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었던 강사님이 A,B 급이라고 찍어준 문제들만 달달 외웠고...그 결과 시험에서는 상당히 낮은 점수인 55점을 받았습니다.

다만, 50점이든 25점이든 서론을 적고 각 문제와 관련하여 확보, 개발, 평가, 보상, 유지, 방출과 관련하여 답안을 쓰기 위한 연습을 많이 했고, 실제 시험에서도 모든 문제에 인사관리의 개별기능을 문제와 접목하여 작성했습니다. 그 결과 소설을 쓰고(?) 나왔음에도 50점 중반이라는 점수라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 4. 노동경제학

노동경제학은 울면서 들어가고 웃으면서 나온다는 수험가 유행어가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하는 말인데, 울면서 들어가서 울면서라도 기초를 다지고 천천히 복습하면서 조바심을 내지 않는다면 수험 막바지에는 많은 공부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험가에는 크게 두 종류에 노동경제학 교과서가 돌아다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에렌버그와 Borjas(뭐라고 읽어야하는지 모르겠네요)교수님의 책인데, 어느 책을 보아도 상관없어 보입니다.

다만,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충실하게 풀어보셔야하고 설사 쉬운 문제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시험에 나온다면 어떻게 답안구성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보셔야 합니다. 그런 고민 없이 선생님의 답안만을 익힌다면 실제 시험에 대응하기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노동경제학은 처음 진입장벽이라면 낯선 용어, 용어의 정의 또는 정의가 그래프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가 가장 크지 않을까 합니다.

이 글이 공모전에 당선되어 읽힐 수 있을지 또는 읽힌다 하더라도 그 시점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1기 초반에는 낯선 용어에 적응을 하셔야하고 자유롭게 답안에 쓰실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갖추신다면 노경에선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노경에서는 그래프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프를 빨리, 깔끔하게, 정확하게 그리는 연습을 많이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주제4. 후배 예비 공인노무사들을 위한 학습 팁 및 하고 싶은 말

- *수험생이지만 나도 사람인데 공부만 할 수는 없다.*

저는 슬럼프를 겪을 틈이 없었습니다. 슬럼프를 겪는답시고 하루이틀..시간을 보내면 공부할 시간도 줄어들고, 평일반을 듣는 1기에도 주말에 하루 쉬면 초조함이 들었습니다. 물론 초보자이기 때문에 공부할 양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도 있었습니다.

다만 체력적으로 힘들어서 지친다고 느낄 때가 종종 있었고, 그런날은 집에 일찍 가서 치킨을 한마리 먹기도 하고, 근처에서 일하는 직장인 친구들에게 연락해서 고기를 얻어먹기도 하면서 체력보충 겸 환기도 하면서 공부했습니다. 낯술도 거리낌 없이 마셨습니다.

제가 노동법은 0기에는 소위 수험가 1타강사님의 수업을 들었는데 머리말에 마음에 드는 말이 있었습니다.

*“나에게만 내리는 비는 없다”*

모두가 힘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경쟁자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매주 시험을 보고 그 후에 발표되는 등수에 좌절하기도 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3기가 시작되면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실력이 엇비슷해집니다. 결과를 내기까지는 공부뿐만이 아니라 하루의 루틴을 얼마나 지치지 않고 지키는지, 마지막까지 방심하지 않고 공부를 해내는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이었고, 혼자 코인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며 울컥한 적도 많습다. 힘내라는 누군가의 말조차 도움이 되지 않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화이팅하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현직에서 더욱 빛나는 노무사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 노무사단기